

“친화적 공동체 조성”...광양시 가족정책 빛났다

도내 기초지자체 최초 국무총리 표창 가족문화센터 거점 맞춤형 지원 구축 89억 투입 돌봄·다문화·1인가구 정책 전국 207개 센터 중 사업 실적 7위 달성

광양시가 1인 가구와 다문화가정 등 변화하는 가족 형태에 발맞춘 혁신적인 지원 정책을 펼치며 친화적 공동체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13일 광양시에 따르면 시는 2026년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 돌봄과 다문화 지원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촘촘한 가족 지원 체계를 구축한 성과를 인정받아 전남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가족정책 유공’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의 핵심 거점인 ‘광양시 가족문화센터’는 총사업비 89억원을 투입해 조성된 생활SOC 복합화 시설이다.

가족센터와 공동육아나눔터, 다문화이주민+센터 등을 결합해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며 전국 207개 가족센터 중 실적 7위를 기록하는 등 독보적인 운영 성과를 내고 있다.

실제로 가족문화센터는 연간 11만3천585명이 이용할 만큼 지역의 사랑방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으며, 이용자 만족도 역시 5점 만점에 4.8점을 기록할 정도로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시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도 행정력을 집중해 2025년부터 추진 중인 ‘광양형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을 통해 정부 지원에서 제외됐던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까지 혜택을 넓혔으며, 민간 공모를 통해 8억원의 외부 재원을 확보해 위기가구를 돕고 있다.

또한 다문화 가정을 위해 결혼이주여성들로



광양시가 가족 친화적 지원 정책을 통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공동체 조성에 나선다. 사진은 가족정책 유공 국무총리 표창 기념사진 촬영 모습. <광양시제공>

구성된 ‘색동나무 인형극단’은 365회 순회공연을 통해 인식 개선에 앞장서고 있으며, 전국 최초의 체험형 미디어 교육 공간인 ‘모두에(愛)플

글로벌미디어체험관’을 조성해 일자리 창출과 교육을 병행하고 있다. 특히 돌봄 체계 역시 전남 최대 규모인 10개소

의 공동육아나눔터를 운영하며 연간 3만여명의 돌봄 공백을 메우고 있으며, 2024년부터 도입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은 현재까지 388명에게 2억3천만원을 지원하며 남성 근로자의 육아 참여를 이끌어냈다.

이밖에 급증하는 1인 가구를 위해서는 ‘1인 가구 등록제’와 자조 모임을 운영해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있으며, 2024년부터는 청년 초혼 부부의 부담을 덜어줄 ‘나만의 특별한 작은 결혼식’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책을 완성할 방침이다.

광양시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시민들과 함께 가족 친화적인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온 소중한 결과물”이라며 “앞으로도 모든 가족이 소외됨 없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가족 정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광양=양홍렬 기자

곡성군 ‘세계장미축제’ 촘촘한 안전망 구축

오는 22일 개막 앞두고 안전취약 개척

인파밀집·화재 등 분야별 대책 마련

곡성군은 오는 22일 개막하는 ‘제16회 곡성세계장미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유관기관과 손잡고 촘촘한 안전망 구축에 나섰다.

13일 곡성군에 따르면 군은 최근 군청 소통마루에서 ‘제3회 안전관리위원회’를 열고 축제 안전관리계획 심의와 올해 집중안전점검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위원회에는 정장모 부군수를 비롯해 곡성경찰서, 곡성소방서, 한국전력공사 등 10여명의 관계기관장이 참석해 분야별 대응 체계를 공유했다. <사진>

위원회는 축제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인파밀집 사고 예방과 화재·폭발·자연재해·교통대책 등 분야별 안전 대책을 집중 심의했다.

군은 위원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반영해 계획



을 보완하고, 개막 전 가설건축물과 소방시설 등에 대해 민간 전문가와 합동안전점검을 실시해 미비점을 즉시 개선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군은 오는 6월19일까지 추진하는 ‘2026년 집중안전점검’ 진행 현황도 보고했다.

올해 건설 현장과 전통시장 등 79개소를 대상으로 전문 장비를 활용한 정밀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결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사후 관리 책임 체계를 강화한다.

특히 매년 약 30만명이 찾는 전국 대표 축제인 만큼 관람객 동선 관리와 실시간 안전 요원 배치 등 현장 대응력 강화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곡성군 관계자는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장미의 향연을 즐길 수 있도록 축제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점검 과정에서 발견된 위험 요인은 즉시 보수·보강해 안전한 곡성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곡성=김영필 기자

고흥군, 道 유일 국가예방접종 ‘질병청장’ 표창

고흥군이 군민 건강 보호를 위한 촘촘한 예방접종 관리와 안전한 접종 환경 조성에 주력하며 전국 최고 수준의 보건 행정 역량을 입증했다.

13일 고흥군에 따르면 군은 최근 질병관리청이 주관한 ‘2026년 국가예방접종 사업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질병관리청장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전남 지역 22개 시군 가운데 고흥

군이 유일하게 선정된 결과로, 체계적인 접종 관리와 예방접종을 향상을 위한 군의 다각적인 노력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군은 영유아부터 어르신까지 전 생애주기를 아우르는 맞춤형 접종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왔다.

특히 1961년 이전 출생자를 대상으로 폐렴구균과 대상포진, 인플루엔자 등 주요 예방접종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며 고령층 감염병 예방에 앞장섰다.

또한 지역 내 지정의료기관과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접종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는 한편, 미접종자에 대한 개별 관리를 통해 방역 사각지대 해소에 힘을 쏟았다.

고흥군 보건소 관계자는 “군민 건강 보호를 최우선에 두고 노력해 온 결실을 보게 돼 뜻깊다”며 “앞으로도 감염병 예방 체계를 더욱 강화해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주성학 기자



‘제49회 보성다향대축제’에 참여한 관광객들이 차만들기 체험을 하고 있다. <보성군 제공>

보성군 전통차 체험관광 지원...농업유산 가치 확산

11월까지 20인 이상 단체 대상

체험비·차량 임차료 선택 지원

보성군은 국가중요농업유산 제11호인 ‘보성 전통차 농업시스템’의 가치를 전파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전통차 체험관광 지원사업을 전개한다.

13일 보성군에 따르면 오는 11월까지 단체 관

객을 대상으로 ‘전통차(음식) 만들기 체험관광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보성만의 독특한 농업 유산을 관광 자원으로 활용해 지역의 매력을 알리고 관광객 유치를 통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2008년부터 기획됐다.

지원 대상은 20인 이상 단체 관광객으로, 군은 차(음식) 만들기 체험비 1인당 2만 원 또는 거

리별 40만~55만원의 차량 임차료 중 하나를 선택해 지원한다.

체험은 한국차박물관과 보림제다 등 관내 2개 지정 체험장에서 진행되며, 프로그램은 차 만들기 및 말차 체험, 차 음식 만들기, 차운명상 등 보성의 차 문화를 깊이 있게 경험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참여를 희망하는 단체는 광주광역시 관광협회(062-224-4486)를 통해 사전 신청하면 되며, 체험 일정과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보성=임병연 기자

장흥군 “‘빠빠용Zip’에서 이색 문화 즐겨요”

5월 가정의달 맞이 프로그램 운영

캠핑형 로컬 장터·글쓰기 체험 등

옛 장흥교도소를 문화예술 공간으로 재생한 ‘빠빠용Zip’이 가정의달을 맞아 소중한 추억을 남기는 이색적인 공간으로 탈바꿈한다.

13일 장흥군에 따르면 빠빠용Zip은 5월 한달간 가족과 연인 방문객을 위해 캠핑형 로컬 장터와 할인 프로모션 등 다채로운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빠빠용Zip을 찾는 가족, 연인, 친구 단위 방문객들에게 더욱 특별한 추억을 선사하기 위해 기획됐다.

오는 18일에는 지역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캠핑마켓 ‘서로살장’이 문을 열며, 통기타 공연과 풍물놀이, 먹거리, 아너바다 장터 등 풍성한

즐거움이 관광객을 맞이한다.

이어 20일에는 글쓰기 체험인 ‘글감용 120분의 영감 배송’이, 30일에는 사진 전시와 체험이 결합한 ‘골목 엮서 사진 배달부’ 등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이 차례로 진행된다.

상시 운영되는 ‘영화로운 책방’에서는 언제든 영화 감상을 즐길 수 있다.

이밖에 방문객을 위해 모든 관람객에게 ‘인생네컷’ 2천원 할인권을 제공하며, 공식 카카오톡 채널 추가 시 3천원 할인권을 선착순으로 추가 증정하는 맞춤형 혜택을 진행한다.

장흥군 관계자는 “이색적인 공간에서 인생샷을 남기고 다양한 문화를 체험할 기회”라며 “군민과 관광객이 모두 즐길 수 있는 지역의 대표 복합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장흥=노홍록 기자



LG화학 여수공장, 도서지역 재능나눔 ‘훈훈’

3년째 ‘아름드리봉사단’ 운영

섬 전기 수리·생필품 등 지원

LG화학 여수공장이 교통이 불편한 섬 지역을 직접 찾아가 전기시설을 수리하고 생필품을 지원하는 등 3년째 지속적인 재능 나눔을 펼치며 지역 사회에 온기를 불어넣고 있다.

13일 여수시에 따르면 LG화학 여수공장은 전남 ‘찾아가는 재능나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삼산면 초도 대동마을을 방문해 노후 전기시설 정비와 100만원 상당의 생필품을 전달했다. <사진>

이번 활동은 도서 주민들의 주거 안전을 확보하고 실질적인 복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LG화학은 2024년부터 ‘아름드리봉사단’을 조직해 체계적인 봉사를 이어오고 있다.

봉사단은 현재까지 18개 섬 107세대를 대상으로 노후 전력 설비 점검 등을 완료했으며, 지난해에는 2천만원 상당의 물품과 교육기구를 기탁해 섬 지역 교육 환경 개선에도 앞장섰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섬 건너 텐트 달린 집’ 사업에도 1천800만원을 지원하는 등 나눔의 외연을 넓혀가고 있다.

올해는 남면, 화정면, 삼산면 내 7개 도서를 집중 지원하고, 오는 9월 열리는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위한 홍보 활동도 병행해 상생의 가치를 높일 방침이다.

이현규 LG화학 여수공장 총괄 공장장은 “재능나눔을 통해 섬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보탬이 될 수 있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사회공헌 활동으로 지역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진선 기자

담양군, 복합재난 대비 ‘안전한국훈련’ 구슬땀

담양군이 극한 호우와 건물 붕괴 등 대형 복합 재난 상황에 대비해 유관기관과 합동 훈련을 전개하며 지역 재난 대응 체계 강화에 나섰다.

13일 담양군에 따르면 전남 군청 영상회의실과 담양종합체육관 일원에서 관계기관·사회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2026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이상기후에 따른 극한 호우와 시

설물 붕괴가 동시에 발생하는 상황을 설정해 사전 대응 역량을 높이고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기획됐다.

훈련은 호우 예비특보 발령에 따른 상황판단회의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현장 통합지원본부 구성 등 실제 지침에 기반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세밀하게 진행됐다.

이날 훈련은 이상기후에 따른 극한 호우와 시